

마가- 신실함(Faithfulness)에 대해서

26th, 11, 2017 중고등부 설교안

본문: 사도행전 15:36-41

[인물배경]

마가는 사도행전 12~13장에 살펴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즉 '요한 마가'라는 인물로 그는 바나바의 생질(누이의 아들)로 보인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를 통과하고 안디옥, 버가, 밤빌리아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였으나 밤비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행13:13, 행15:37-39) 그럼에도 그는 키프로스에서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맞이하라고 말했다. (골4:10-11, 딤후4:11, 빌레몬24)

직업: 어부 마4:18-22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시몬)-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요한(마가)를 부르심

이름: 히브리 본명(요한), 로마식 이름(마가 Marcus) 인 것으로 보임.

#마가(요한) 인물에게서 배울 주제# "신실함"

1.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① 행12:12(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남) 이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음**(일명,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응답을 목격한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라.

② 행12:25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옴

③ 행13:5,13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전도의 **요한이 섬기는자로 일함(minister)**/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한참 1차 선교 여행 중(밤빌리아 버가)에 요한이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1차 선교여행의 선교팀 멤버로 뽑힌 명예가 실추된 사건(중도하차의 이유는 불분명)

④ ★★행15:36-41 2차 선교여행을 준비중

바나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

바울 : 밤빌리아 버가에서 요한이 떠난일 언급('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라고 평가함)

바나바 입장: what can God's work do for people? (기회를 줘야지 않나?)

바울의 입장: what can people do for God's work? (준비된 사람이 해야지 않나?)

a. 이 갈등은 중요한 질문임. balance를 맞추는게 중요함.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심 but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면 후자의 자세를 취하는게 좋다고 생각됨.

=> 이 일로 두 사람은 따로 사역을 하게됨-> 성경에서는 바울을 중점적으로 언급(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됨/ 바나바와 같은 생각은 일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듬)

[적용]

평판의 변화 : minister로 부름 받음 마가(요한) =>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

1)성경 신자는 성도들의 평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사람에게 잘 보여라는 말이 절대 아님.->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세상 기준으로 '책임감', '충실')-> 신실함 (faithfulness)

- Faithfulness is the concept of unfailingly(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확실한) remaining loyal to someone or something, and putting that loyalty into consistent practice regardless of extenuating circumstances.(참작할 만한 상황) (from wikipedia)

: (해석) 신실함이란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확실한) 충성스러움을 유지하는 개념이다. 또한 참작 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그것에 관계없이 일관된 행동으로 성실함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2) ★성경 곳곳에 훌륭한 사역자, 성도들에 대한 평가의 수식어는 바로 "신실함"

골4:9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행16:15 루디아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faithful to the Lord)

엡6:21 주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faithful minister in the Lord)

고전4:17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faithful in the Lord)

벧전5:12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바울) 생각하는 실루아노(=실라)-> 실루아노가 무엇을 전했길래? (고후1:19)// (행15:32- 바울과 함께 일한 실라도 대언자였고, 로마 시민 이었음을 알 수 있음

고후1:19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 안에는 yes만 있었음. ->

여러분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것(Yes) ---> 본을 보이신 것(Yes)

마가(요한) : 선교여행을 통해 복음전하겠습니다.(Yes) ---> 1차 선교여행 중 집으로 돌아감(No)

우리 자신들 : 경건, 성화의 삶을 살겠다. (Yes) ----> 행동은 No ?

* 주변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건 결국 누구에게 신실한 것인가? 주님께.

신실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in the Lord, to the Lord

주의 일을 할 때, 이 점을 꼭! 항상! 기억해야 한다.

3)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료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할 수 있음.

2. 신실함을 회복한 마가

교재- P23-(4) 참조하여 함께 읽어보기

바울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함,

⑤ 빌레몬서1:24 나의 동료 일꾼 마가/ 골4:10~11 마가를 받아들이라->나의 동역자들, 나의 위로

*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 그이 종이 오네시모였음

⑥ 딤후4:11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바울) 유익하니라.

⑦ 벰전5:13 내(베드로) 아들 마가 - 마가의 삶의 후반부에는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한 것으로 보임

어떻게 마가는 회복하였는가?

고후3:5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적용]

- ★마가의 평판의 변화: 신실한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 사역에 유익하고 내 아들 같은 자
- 젊은 시절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복함(마치, 모세와 비슷함)-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보면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 일하다가도 실패, 판단 착오 등등을 할 때가 있음. 그게 원래 인생임. but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됨.
-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확인-> 신실한 성도는 자신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성경인물들을 통해 확인하게 됨.(다윗, 히스기야 등등)
- 주님을 섬기는 일은 나의 재능(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마가가 깨달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리

- [1]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신실함-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주께 대하듯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 [2] 주님의 일을 할 때 낙담할 수는 있지만 자포자기 해서는 안된다. 신실한 사람은 다시 회복함.
주님을 섬기는 힘(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4. 나눔

Q1.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작은 일이라 생각하는 점심 먹고 책상 정리, 정리 정돈, 새로 온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기 등등

Q2. 아주 작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각자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나눠보고 실천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